

신안, 폐교 활용 문화시설 조성 '눈길'

신안군이 폐교를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신안군이 펼치는 1도 1주지엄을 중심으로 도시로 떠났던 젊은 지역민이 귀향할 수 있는 공간이 재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민선4기 이후 지역 내 폐교를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 현재 25개소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비금 대광분교를 리모델링한 이세돌 바둑기념관이 대표적으로 매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자리잡았다.

안좌초 안장분교는 지난 2019년 세계 화학·광물박물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방과 전시공간, 사계

절 꽃이 피는 정원 등으로 조성됐다.

폐교의 변신과 땅속의 신비스러움을 마음껏 감상하고 싶을 얻어가는 복합공간으로 화석, 광물 등 수집품 4,000여 점으로 꾸며졌다.

자은 두봉초에 들어설 예정인 도서생활사 박물관은 공사가 한창이다. 흑산초 서분교(사리)의 유배박물관과 신의초 신의남분교의 세계인권평화 미술관은 추진 중이다.

안좌초 사치분교와 흑산초 만재분교, 암태초 당사분교는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인 경로당과 외부인들의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대신하는 숙박 시설로 활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도초 신광분교는 요양원과 천일염 체험관 시설로, 임자남초 재원분교는 지역



신안 비금 대광분교를 리모델링한 이세돌 바둑기념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 제공

민의 건강 증진을 도맡는 보건진료소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해 관광 길잡이로 변신한 흑산초 신흥분교(홍도2

총 42개소 매입...주민 위한 공간 이용 '호응' 박물관·미술관·숙박 시설 등 인구 유입 효과

구)는 다세대 맨션으로, 안좌초 반월분교는 퍼플섬 관리사무소, 지도초 선지분교는 수선화 관리센터, 증도초 병풍분교는 맨드라미 체험센터 및 관리사무소로 운영 중이다.

이밖에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센터와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의3도 농민운동 기념관(대광분교), 섬마을 인생학교(도초서초) 세계생태수도섬 방문자 센터(도초동초), 청년마을이 조성된 안좌초 팔금분교 등이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폐교 전 단계인 휴교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 건물 이 더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계획도 세웠다.

신안군 관계자는 "학교는 섬 지역의 교육·역사·사회·종교 등 생활 문화공간으

로, 지역공동체의 중심체로 작용을 했다"며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영혼이 깃든 소중한 유산인 폐교 매입에 나서겠다"며 "섬 지역 폐교는 지역 주민의 사랑방으로, 도시로 떠난 이들의 귀향 공간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의 폐교는 700여곳으로 신안군은 지금까지 83개소의 폐교가 발생했다.

이중 민간에 매각된 폐교는 41개소, 신안군에서 사들인 폐교는 42개소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 코로나 선별 검사 총력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선별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선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삼학도 한국섬진흥원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는 입출항 선원, 어업협회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 검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 검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 날인 지난 17일에는 산정농공단지 A업체를 찾아 103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의 대상은 검사 인원 50명 이상 기업체, 집단 거주 시설 등이다. 2개 이상 사업체가 공동 신청해 50명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도 가능한데 장소는 신청업체가 협의해 1곳으로 선정하면 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업체·시설·기관 등은 목포시안전총괄과(061-270-8573)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 신규지구 하수도 정비 박차

4개소 사업비 137억 투입

해남군이 군민들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신규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화원 화봉지구(화봉, 초동, 인지,

장수), 문내 난대지구, 송지 동현지구, 문내 예약지구)에 국비 9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37억원이 투입된다.

각 지구별 사업규모는 ▲화원 화봉지구 하수관로 7.50km, 배수설비 177가구 ▲문내 난대지구 하수관로 1.82km, 배수설비 84가구, ▲송지 동현지구 하수처리장 35㎡/일, 하수관로 1.29km, 배수설비 76

가구 ▲문내 예약지구 하수처리장 35㎡/일, 하수관로 1.41km, 배수설비 81가구 등이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가구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악취 발생, 분

뇨 누수 등의 주민 불편 사항이 개선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차집해 분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정화된 생활하수를 방류함으로써 해역의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농어업 발전에 최선 다할 것"

김재식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제13대 해남·완도지사장에 김재식 지사장이 최근 취임했다.

김재식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어려운 현실을 지역 개발에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일등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농어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장은 보성 출신으로 여수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5년에 입사해 기술안전품질팀 진단기획부장, 전남본부 수자

원관리부장, 사업관리부장을 역임했다.

김 지사장은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진화력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직원 상하간에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병태 기자



고향 방문 자제·백신 접종·진단 검사 받기

완도, 코로나 확산 방지 '3GO' 운동

완도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잠시 멈춤 3GO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3GO'란 고향 방문 자제하Go, 백신 접종 맞Go, 진단 검사 받Go 등 세 가지 키워드의 줄임말이다.

이번 운동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설 명절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군은 4대 분야, 29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잠시 멈춤 운동도 추진한다.

4대 분야는 '잠시 멈춤 3GO 실천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군민·향우 회원 참여 제고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특산품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영암 서호면, 관내 단체 후원금 전달

영암군 서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면사무소에서 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단체의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서호면자율방재단(단장 오재명) 100만원, 서호면청년회(회장 허남수) 100만원, 재향군인회서호면지회(회장 김성길) 50만원, 서호면농업경영인회에서(회장 김영도) 30만

원 등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서호산전 손대성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생필품 55세트를 전달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노명환 공공위원장장은 "도움의 손길 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남도농산 전병하 대표, 건강식품 기탁

강진군은 최근 ㈜남도농산(대표 전병하)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1,100만 원 상당의 영양식 오트쉐이크 150박스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탁 식품은 닭가슴살, 무농약 강진산 쌀귀리, 현미, 새싹보리 등 100여 가지 곡물과 과채 분말을 넣어 만든 고단백 영양 건강식품으로 관내 복지시설 14개소에 전달됐다.

전병하 대표는 "군민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현재의 남도농산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최근 출시한 제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시설 어르신들과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전문건설협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 성금 기부

무안군은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으로 부터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고성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사회복지과장은 "성금은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기술 개발과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정부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됐다. /무안=박주현 기자